

주목! 이영화

‘추격자’



쫓고 쫓기는 사람들
섬뜩한 액션 스릴러

아무 죄책감 없이 사람들을 죽이는, 그것도 돈기로 머리를 내리치고 시체를 토막내는 엽기연쇄 살인마가 있다. 그리고 그를 쫓는 한 남자.

‘추격자’는 ‘24시간’ 동안 두 사람이 쫓고 쫓기는 과정을 그린 액션 스릴러다. 범인은 극 초반에 밝혀지고, 영화는 숨막히는 긴박감과 함께 유머를 통해 관객들을 웃겼다 조였다 하며 두 사람의 추격 과정을 지켜보게 만든다.

출장 안마 포주인 전직 경찰 엄중호는 아가씨들이 하나 둘 사라지는 일을 겪는다. 어느 날 미진을 불러낸 손님의 전화 번호가 사라진 여자들이 마지막 통화한 번호와 일치함을 발견한 엄중호는 미진을 찾아 나섰다 웃어 피가 묻은 지영민을 발견하고 그가 범인임을 직감한다.

직접 각본을 쓰고 감독 신고식을 치른 나홍진 감독은 푹신 있게 영화를 밀어붙이며 ‘월 메이드 장르 영화’를 만들어냈다. 장면 장면은 아귀가 딱딱 들어맞고, 설 새 없이 달리는 주인공들을 향한 카메라는 긴박감을 더한다.

배우들의 연기도 빛을 발한다. ‘타짜’의 아귀 역으로 출연했던 엄중호 역의 김윤석은 삶에 찌든 표정 연기와 액션, 입에 착착 감기는 대사로 스크린을 장악한다.

살인마 역의 하정우는 드라마 ‘히트’에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웃는 모습 등은 아비하면서도 섬뜩하다.

탄탄한 영화는 역시 조연들까지도 재미를 다한다. 미진 역의 서영희, 엄중호가 따르는 이형사 역의 정인기, 미진 딸 역의 김유정까지 모든 배우들이 만족스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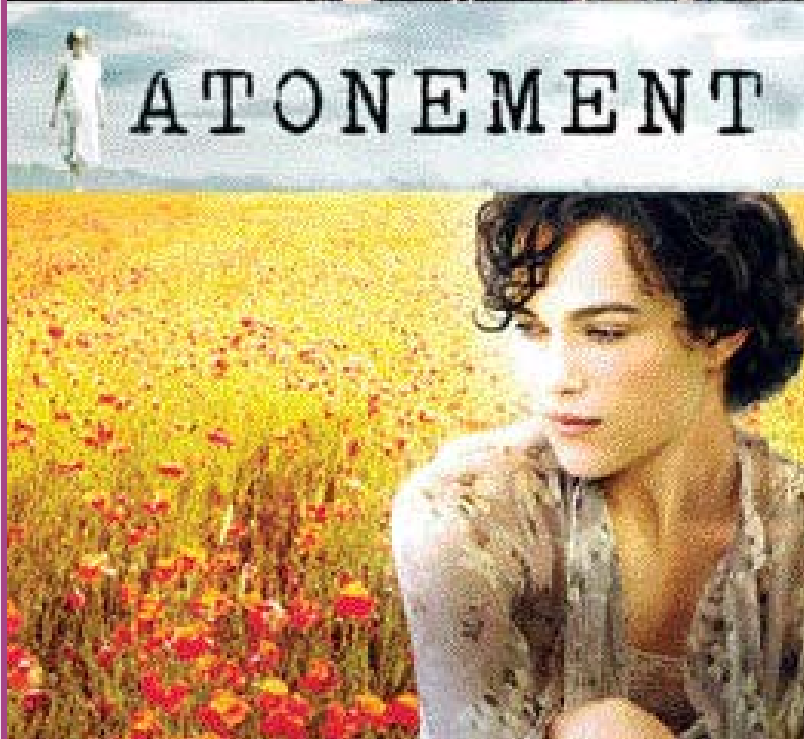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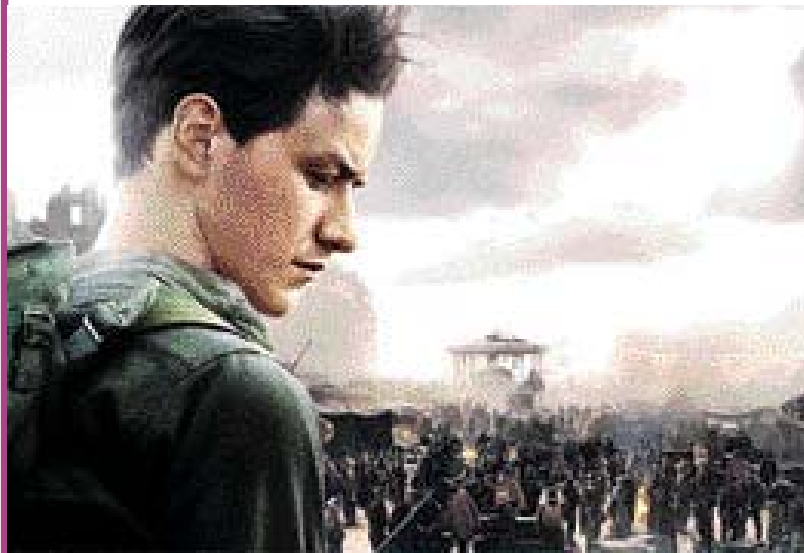
잔인한 장면들을 참을 수 있다면, 계속되는 욕설이 귀에 거슬리지 않는다면, 장르적 쾌감을 ‘제대로’ 느끼며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영화다. <18세 이상 관람가>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지난해 열린 제79회 아카데미 시상식의 스타는 감독 미넬 스톰세지였다. ‘좋은 친구들’ ‘택시 드라이버’ 등으로 7차례나 감독상 후보에 올랐지만 이번이 낙마했던 그가 ‘디피티드’로 감독상은 물론, 작품상 등 4개 부문을 수상했기 때문이다.

80회 아카데미 시상식이 오는 24일로 다가왔다. 미국 작가 조합의 파업으로 개최 여부가 불투명했던 아카데미 시상식은 최근 협상이 타결되면서 정상적으로 치러지게 됐다.

지난해 후보작 중 ‘디피티드’와 ‘드림걸즈’ 정도가 한국에서는 선전했었다. 올 아카데미 특수를 노리고 개봉하는 영화들을 살펴본다. 올 후보작 중에는 특히 유명 베스트셀러를 원작으로 한 영화가 많아 출판계 역시 특수를 노리고 있다.



7개부문 후보에 오른 ‘어톤먼트’. 영국 아카데미상과 골든글러브상 작품상을 수상했다.



작품상·여우주연상 등 4개 부문 후보에 이름을 올린 영화 ‘주노’

▲어톤먼트

7개 부문 후보에 올라 있는 작품으로 이미 영국 아카데미상과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작품상 등을 수상했다.

부유한 집안의 딸 세실리아는 집사의 아들이자 명문대 의대생 로비와 사랑하는 사이지만 세실리아의 동생 브라이오니의 오페로 로비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전장터로 끌려가게 된다.

이후 세실리아는 간호사로 일하며 로비를 기다리고, 로비 또한 세실리아를 다시 만난다는 단 하나의 일념으로 전장터에서 살아남는다.

‘오만과 편견’의 조 라이트가 메가폰을 잡았고, 키이라 나이틀리가 주연을 맡았다.

그녀가 영화에서 입고 출연한 녹색 드레스는 최근 타임이 선정한 ‘영화 사상 최고의 의상’으로 꼽혔고 브라이오니 역을 맡은 13세의 시얼샤 로넌은 여우 조연상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우리나라에서 ‘속죄’라는 제목으로 발간된 이언 매튜언의 소설이 원작이다. 21일 개봉 예정. 15세 이상 관람가.

▲주노

작품상, 여우주연상 등 4개 부문 후보에 이름을 올린 작품으로 10대 소녀가 임신 하게 되면서 겪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22억원의 예산을 들인 저예산 작품이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60배가 넘는 1천 200여원을 벌어들였고, 미국 작가조합의 각본상을 수상하는 등 탄탄한 스토리가 좋은 평을 받고 있다.

교내밴드에서 기타를 치는 소녀 주노는 첫 성경험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친구 블리커를 상대로 정한다. 임신 소식을 알게 된 주노는 차마 수술을

아카데미 특수



노미네이트 작 잇따라 개봉
베스트셀러 원작 영화 다수

못하고 버려진 신문에 광고를 내고 아이를 키워줄 불임 부부를 찾는다.

10대의 임신이라는 다소 과격적인 소재를 전혀 색다르게 풀어낸 성장 영화로 주인공 역을 맡은 엘렌 페이지는 사랑스런 주노의 캐릭터를 완벽하게 소화해 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21일 개봉 예정. 12세 이상 관람가.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8개 부문에 지명된 최다 후보작이다. ‘바톤 킹’ ‘파고’ 등의 독특한 영화로 국내에도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는 코엔 형제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우연히 거액이 든 가방을 손에 넣은 한 남자와 그를 뒤쫓는 살인 청부업자의 대결을 그렸다.

영화 상영 내내 단 한차례도 배경음악이 사용되지 않을 정도로 조용한 분위기를 유지하며 숨막히는 게임을 벌이는 작품이다.

플리처상 수상 작가인 코맥 맥카시의 동명의 작품이 원작이다. 18세 이상 관람가. 21일 개봉.

▲데어 윌 블러드

연기와 배우 다니엘 데이 루이스가 주연을 맡아 이미 골든글러브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영화로 작품상, 감독상, 남우주연상 등 8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된 작품이다. 엥론 싱클레어의 1927년작 소설 ‘오일’이 원작으로 ‘매그놀리아’의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이 연출했다.

1898년 미국, 알코올 중독자에 부인도 없이 홀로 아들을 키우며 황무지 사막 한가운데서 글을 쓰는 무일푼 광부 다니엘 플레인뷰는 어느날 이곳에서 석유 유전을 발굴, 일확천금의 행운을 누리게 된다.

아심한 석유 개발과 함께 시작된 그의 야망과 꿈은 어느새 탐욕과 폭력으로 바뀌게 된다. 15세 관람가. 3월 6일 개봉 예정.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주말 극장가	
영 화	상영극장
6년째 연애중	롯데(철дан·광주), 메가박스, 무등, 콜럼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철단), 씨너스 전대, 엔터, 프리미어 광주, 제일, 하이
추격자	롯데(철дан·광주), 메가박스, 무등, 콜럼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철단), 씨너스 전대, 엔터, 프리미어 광주, 제일, 하이
점퍼	롯데(철дан·광주), 메가박스, 무등, 콜럼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철단), 씨너스 전대, 엔터, 프리미어 광주, 제일, 하이
대한이 민족씨	롯데(철дан·광주), 메가박스, 무등, 콜럼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철단), 씨너스 전대, 엔터, 프리미어 광주, 제일, 하이
미지막 선물	롯데(철дан·광주), 메가박스, 무등, 콜럼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철단), 씨너스 전대, 엔터, 프리미어 광주, 제일, 하이
스파이더워커의 비밀	롯데(철дан·광주), 메가박스, 무등, 콜럼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철단), 씨너스 전대, 엔터, 프리미어 광주, 제일, 하이
오퍼나지: 비밀의 계단	롯데(철дан·광주), 메가박스, 무등, 콜럼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철단), 씨너스 전대, 엔터, 프리미어 광주, 제일, 하이
찰리월슨의 전쟁	롯데(철дан·광주), 메가박스, 무등, 콜럼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철단), 씨너스 전대, 엔터, 프리미어 광주, 제일, 하이
더 게임	롯데(철дан·광주), 메가박스, 무등, 콜럼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철단), 씨너스 전대, 엔터, 프리미어 광주, 제일, 하이
명장	롯데(철дан·광주), 메가박스, 무등, 콜럼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철단), 씨너스 전대, 엔터, 프리미어 광주, 제일, 하이
슈퍼맨이었던 사나이	롯데(철дан·광주), 메가박스, 무등, 콜럼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철단), 씨너스 전대, 엔터, 프리미어 광주, 제일, 하이
원스 어폰 어 타임	롯데(철дан·광주), 메가박스, 무등, 콜럼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철단), 씨너스 전대, 엔터, 프리미어 광주, 제일, 하이
무방비 도시	롯데(철дан·광주), 메가박스, 무등, 콜럼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철단), 씨너스 전대, 엔터, 프리미어 광주, 제일, 하이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롯데(철дан·광주), 메가박스, 무등, 콜럼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철단), 씨너스 전대, 엔터, 프리미어 광주, 제일, 하이

Happy Time 영화안내

<p>영화보다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p> <p>메가박스</p> <p>구. 런던역사거리 ☞메1544-0600</p> <p>1관 추격자-디지털 (18세) 최고급관 2관 점퍼 (15세) 3관 스파이더워커의 비밀 (전제) 4관 원스어폰어타임 (12세)/점퍼 (15세) 5관 6년째 연애중 (12세) 6관 대한이, 민족씨 (15세) 7관 더 게임 (15세) 8관 오퍼나지-비밀의 계단 (15세) 9관 추격자 (18세)</p> <p>광주점 무료팝콘 행사 종료했습니다. • 이프유 주차장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 한함) 2시간 30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p>	<p>— 온 가족의 편안한 문화공간 —</p> <p>엔터 시네마</p> <p>총창로 5가 (전화예약) 228-2700</p> <p>1관 점퍼 (15세) 2관 미지막 선물 (15세) 3관 원스어폰어타임 (12세) 4관 더 게임 (15세) 5관 6년째 연애중 (15세) 6관 우리생애최고의순간 (전제)/명장 (18세) 7관 추격자 (18세)</p> <p>www.entercinema.co.kr * 넓고 편안한 국내-옥외 주차장 300대 *</p> <p>• 온 가족의 편안한 문화공간 •</p>	<p>환호시망 영화시망 • 예매: www.joycine.com/ 1588-7941</p> <p>콜럼버스 시네마 상무점</p> <p>상무점 (상무병원과 이마트 사이) 하남점 (무역회관 뒷편)</p> <p>1관 원스어폰어타임 (12세) 2관 더 게임 (15세)/찰리월슨의전쟁 (15세) 3관 추격자 (18세) 4관 추격자 (18세) 5관 6년째 연애중 (15세) 6관 우리생애 최고의순간(전제)/미지막선물(15세) 7관 스파이더워커의 비밀 (전제) 8관 찰리 월슨의 전쟁 (15세) 9관 대한이, 민족씨 (15세) 10관 점퍼 (15세)</p> <p>* 호날 최다주장 * 매일심야 상영합니다 1588-7941 콜럼버스점 (10시) 찰리월 상영중 상영시간표 별도 (11시 or 2시) or 11시</p>	<p>색깔있는 영화시망 • www.cinuso.co.kr/ 1544-0070</p> <p>씨너스 전대</p> <p>북구보건소 건너편 ☎ 511-1000</p> <p>1관 추격자 (18세) 1관 더 게임 (15세) 2관 6년째 연애중 (15세) 3관 점퍼 (15세) 4관 오퍼나지-비밀의 계단 (15세) 5관 대한이, 민족씨 (15세) 5관 우리생애최고의순간 (전제) 6관 원스어폰어타임 (12세) 7관 추격자 (18세)</p> <p>• 매일심야 상영합니다 •</p> <p>• 무료주차 3시간 • 이동통신사 할인혜택 • 씨너스독자 사무(모바일-캐시) ARS 전화예매 1544-0070</p>	<p>즐거움이 가득 • www.mo12.co.kr/ 1588-9101</p> <p>무등극장</p> <p>총창로 1가 ☎ 232-9106</p> <p>1관 찰리월슨전쟁 (15세)/우리생애최고의순간(전제) 2관 오퍼나지-비밀의 계단 (15세) 3관 점퍼 (15세) 4관 더 게임 (15세) 5관 추격자 (18세) 6관 대한이, 민족이 (15세) 7관 6년째 연애중 (15세) 8관 미지막 선물 (15세) 9관 원스어폰어타임 (12세)</p> <p>• 리바사이드호텔 무등주차장(구 수협) 3시간 무료주차 • 매일심야 상영합니다 • 인터넷 예매 문의 1588-9101</p>	<p>새로운기쁨 • www.primuscinema.com/www.jellcinema.co.kr</p> <p>제일 시네마</p> <p>총창로 3가 ☞ARS 전화예매 227-1960</p> <p>1관 추격자 (18세) 2관 6년째 연애중 (15세) 3관 원스어폰어타임 (12세) 4관 점퍼 (15세) 5관 우리생애최고의순간 (전제) 6관 미지막 선물 (15세)</p> <p>• 무료주차 3시간 (광주 세무소 옆 호남타워주차장) 단, 입장권 구매 고객에 한함 ARS 전화예매 문의 227-1960</p>
--	---	---	---	---	--